

서 평 + α 로

책 과

사 람 을 잇 는 다

교보문고 인터넷 영업부 웹 운영팀 - 최 향

인터넷 교보문고엔 일상적인 친근함 때문에 오히려 눈에 띄는 서평자가 있다. 현학적인 언어구사로 오히려 책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건 딱 질색이라는 이 스물일곱 아가씨의 향기나는 책 이야기는 인터넷 교보 방문객들의 단골 명소로 자리잡았다.



“출판사분들이 오시면 저한테 <향이의 새 책 이야기>의 그 향이가 정말 맞냐고 물어오시곤 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환상이 깨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밝히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러세요.”

손때 묻은 엽서처럼 사적인 듯, 그래서 친근한 인터넷 교보문고 <향이의 새 책 이야기>의 주인공 최 향은 그가 매주 독자들에게 보내는 글만큼이나 밝고 솔직하다.

“처음엔 인터넷 서점의 특성상 새 책 소식 코너 필요성 때문에 출발했어요. 책만 그냥 소개하면 너무 단순할 것 같아서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가볍게 시작했는데, 요즘은 정작 책 소개 글은 안 보시고 글 시작 부분과 끝 부분만 읽는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의 말마따나 매주 <향이의 새 책 이야기>를 읽는 재미는 사실 ‘책’ 이야기보다 본론 전에 그가 전해주는 ‘사적인’ 이야기에 있다. 이렇게 향이의 관심사는 ‘서점’을 중심축으로 본인에게 일어난 사건, 만난 사람들을 한 바퀴 아슬렀다가 <새 책 이야기>에 쏠려있구나 하는 ‘직업병’으로 귀결된다.

얼마 전엔 대한민국에서 가장 뻔뻔한 종족으로 취급받던 ‘아줌마’들보다 더 몰염치한 막강 종족 아저씨들의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의 타인에 대한 무감각을 여지없이 꼬집기도 했다.

“저희 서점의 주고객은 30대 남성 직장인들이거든요. 책 가격이나 할인율에 민감하지 않고, 교보라는 브랜드 자체를 보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분들을 비난(?)하는 글을 썼으니, 그 이후 여파가 꽤 컸죠(웃음).”

개인의 취향까지 ‘운동’으로 계몽해야 하는 경직된 풍토도 사라졌으면 싶고, 첫 두세 페이지지만 읽히고 바로 서가에 꽂히는 ‘보여주기’용 책은 출판사에서도 가급적 만들지 말았으면 싶다. 광화문 연가에만 빠져 있을 성 싶은 이 ‘서점 아가씨’가 소망하는 것은 이밖에도 많다. 그 중에서도, 작은 규모라 해도 좋은 책 만드는 출판사가 조명받는 사회를 바란다. 물론 가장 당면한 소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책이 있다. 그 책으로 가고 싶다”이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탓인지 그는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이 많다. 졸업을 하고 공부를 계속해볼까 잠시 고민하다 취업으로 방향타를 돌린 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심리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이 한몫했다. 하지만 그보다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바람이 더 크게 작용했다.




“서점에서 일한다고 하면 책을 많이 읽을 거라고들 하시지만, 예전보다 오히려 독서량은 줄었어요. 접하는 책들은 엄청나지만 아랫분모가 크다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책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연재를 시작한 게 2001년 2월이었으니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다. 이 코너 덕분에 해외에 나가서도 향이 씨 때문에 꼭 한국에 있는 것 같아 좋다는 사람, 정기적으로 안부를 전해오는 사람들까지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다.

게다가 참한 남자친구까지 얻었으니, 일석 다조(?)의 행운까지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의식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많은데요. 인터넷으로 주문 들어오는 책의 대부분은 매스컴에서 다루어준 책들, 즉 <느낌표!>에서 소개되었거나 큰 출판사 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홍보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작은 출판사 책들은 빛을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인위적으로 독서경향을 잡아가는 특정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전 그렇게 읽으라고 강요하는 책은 별로 읽고 싶지 않거든요. 책 소개 프로그램이 오히려 책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취향까지 '운동'으로 계몽해야 하는 경직된 풍토도 사라졌으면 싶고, 첫 두세 페이지만 읽고 바로 서가에 꽂히는 '보여주기' 용 책은 출판사에서라도 가급적 만들지 말았으면 싶다. 광화문 연가에만 빠져 있을 성 싶은 이 '서점 아가씨'가 소망하는 것은 이밖에도 많다. 그 중에서도, 작은 규모라 해도 좋은 책 만드는 출판사가 조명받는 사회를 바란다. 물론 가장 당면한 소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책이 있다. 그 책으로 가고 싶다”이다. 

취재 양선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